

#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이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리더십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최미숙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 Humanity Leadership Program on Personality, Self-Esteem, Leadership and Life Satisfaction

Mi-Sug Choi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on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이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리더십과 삶의 만족도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I시 소재의 대학교 1학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45명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조사는 2017년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매월 2회씩 총 6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1회기 시작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6회기 프로그램 종료 후에 사후검사를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검사는 인성, 자아존중감, 리더십,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SPSS 24.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실험집단내 사전 사후 점수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인성 하위영역에서는 정직이,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 등 3가지 영역에서 그리고 삶의 만족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대학생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및 프로그램 개발 내용에 있어서 정직을 핵심으로 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university-based humanity leadership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personality, self-esteem, leadership and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5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45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did not participate in the leadership program.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5, 2017 to November 28, 2017. The program was conducted twice a month for a total of six session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preliminary tests were conducted before the first session and then post-tests were conducted after the program. The test consisted of a questionnaire survey on personality, self-esteem, leadership, and life satisfaction. Data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SPSS 24.0 for the frequency analysis and the response sample t test for determining the differences in the post-test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sonality,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positive effects were found in three domains that included honesty,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others, leadership, popularity, and self-assertiveness. This resul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life through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and with an emphasis on honesty, in the program's development and contents.

**Keywords** : Personality, Self-Esteem, Leadership, Satisfaction of Life, College Student Humanity, Leadership Program

이 논문은 2019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Mi-Sug Choi(Wonkwon Health Science Univ.)

email: czy12@wu.ac.kr

Received June 19, 2019

Revised July 12, 2019

Accepted August 2, 2019

Published August 31,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대학교육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각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정책이 반영되면서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인성교육이 확산되어 왔다. 특히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신을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인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은 선(禪)과 마음공부를 통해 사람이 본래 타고난 천진난만한 원만한 성품이 발현되도록 해야한다[1].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대학은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적 성과를 이루지도 못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이다[2]. 특히 전문대학은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숙련된 기술자 양성에서 새로운 기술 창출을 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 해야 되므로 전문대학에서는 반드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양교육이 전공교육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기초학문이다. 또한 대학의 각 학과에서 중도탈락 학생들이 증가하고 대학생활 부적응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성과 리더십 관련 교양교육은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대학생 인성교육은 대학생 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학교생활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3].

이에 논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고 대학교육 현장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본 연구를 통하여 미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통합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직접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1.2 연구과제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교 1학년 학생에게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보다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리더십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실험집단내에 대응표본 t검정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이 인성, 자아존중감, 리더십, 삶의만족도에 있어서 어떠한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대학현장에서 실시하게 될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구성 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

### 2.1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핵심 요소를 학자마다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다. Lickona(1988)는 인성교육의 목표를 자기중심에서 탈피하여 협동과 상호존중을 지향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고 공평함, 따뜻한 배려, 정당한 권위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존중심에 바탕을 둔 하나의 공동체 만들기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 또한 대학 인성교육의 목적을 자기규정능력, 공동참여 및 책임능력, 연대능력의 향상으로 두었으며[5], 타인에 대한 공감교육과 올바른 도덕 판단능력을 기르는 교육임을 강조하기도 한다[6]. 그러나 교육부는 1997년 인성교육의 기본 목표를 인성교육의 철학 및 목표정립을 통해 도덕성과 인간적인 덕성 함양의 내실화로 세계 속의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육성할 것을 밝혔으며, 1998년에는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어 인성의 바람직한 기초를 형성하고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2014년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에서 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선정하여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7]. 특히 대학생의 발달적 시기를 고려할 때, 대학의 인

성교육 목표는 무엇보다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 완성되어 남과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대학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나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타인을 이해해 나가기, 학생중심의 자율동아리 활동, 체험활동 등을 통해 집단 내 자신의 위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들로 실제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토론을 통해 갈등을 줄여가는 등의 사회적 기술을 체득해 나가고 올바른 가치와 행동규범을 습득함으로써 심리 사회적 성숙을 경험하며, 그들의 학습과 생활에서의 긍정적인 적응을 도모해 나가게 된다. 김은주(2016)는 대학생들의 인성발달이 인문학적 핵심역량의 도덕적 자기인식, 습관, 양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으며, 봉사헌신 역량은 인성발달의 감정이입, 도덕적 자기인식, 습관, 양심 등의 관련성 예측을 보고하였다[8]. 또한 김선주(2016)는 대학생 인성수준 및 요구도에 따른 인성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수준과 요구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결과 및 성별, 학년별, 전공별 특성에 따른 인성수준과 요구도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9]. 또한 박은민, 박미량(2015)은 대학 신입생을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 신입생들의 리더십, 생활기술,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10]. 또한 오승은(2016)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캠프형 리더십 프로그램이 셀프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생 인성교육으로 인성과 리더십을 통합한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 2.2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1회기는 들어가기 영역으로 마음과 인성을 주제로 한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2회기는 자아존중감 영역으로 마음챙김을 주제로 한 마음일기 쓰기 및 공유를 통한 체험식 프로그램이다. 3회기는 인성영역으로 리더의 인성을 주제로 한 리더의 인성을 관찰하고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지도인상의 인성을 닦아가는 연습을 하는 훈련식 프로그램이다. 4회기는 리더십영역으로 창의적 리더십을

주제로 다양한 리더의 리더십 사례를 학습하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5회기는 삶의 만족도 영역으로 연결고리 찾기를 주제로 주변과의 관계성 및 소통 목록을 찾아 정리하는 보고서 작성식 프로그램이다. 6회기는 마무리 영역으로 소통의 힘을 주제로 이해와 감사실천 사례 나누기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얻은 소득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이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리더십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심의승인(연구승인번호:WKIRB-201709-SB-072)후 중소도시 I시 소재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 선정은 9월 2학기 개강 첫째주와 둘째주 화요일 9교시 동아리 모임에서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후 본 연구에 참여 동의를 작성한 학생 90명을 선착순으로 표집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실험집단 45명과 통제집단 45명을 각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여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김선주(2017)가 개발한 대학생 인성 척도[12]와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강중구(1986)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대학생 자아존중감 척도 그리고 Wittenberg와 Reis(1988)의 대인관계능력 검사를 바탕으로 배정우(2007)가 제작한 리더십 척도와 Diener와 동료들이(1985)가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척도별 문항수를 구성하였다.

#### 3.2.1 측정도구

대학생 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주가 개발한 대학생 인성척도로 협동, 정직, 효, 예, 존중, 책임, 소통, 배려 등 8개 하위영역별 각 5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양식은 5단계의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각각의 문항에 어

는 정도 동의하는 지를 물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인성척도 신뢰도 (*Cronbach's α*)는 .93로 협동 .89, 정직 .88, 효 .79, 예 .84, 존중 .78, 책임 .90, 소통 .74, 배려 .78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강중구(1986)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자아존중감척도로 자기존중 5문항, 타인과의 관계 7문항, 지도력과 인기 6문항, 자기주장 7문항으로 4개 하위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양식은 5단계의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않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각각의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지를 물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자기존중 .75, 타인과의 관계 .64, 지도력과인기 .60, 자기주장 .62로 나타났다.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Wittenberg와 Reis(1988)의 대인관계능력 검사를 바탕으로 배정우(2007)가 제작한 리더십 척도로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능력, 갈등해결능력, 시간관리능력 등에 각 5문항으로 5개 하위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양식은 5단계의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않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각각의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리더십 신뢰도(*Cronbach's α*)는 .95로 대인관계능력 .71, 의사소통능력 .74, 의사결정능력 .90, 갈등해결능력 .69, 시간관리능력 .90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와 동료들이 (1985)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로 지난 한달동안 자신의 삶의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양식은 7단계의 Likert척도(1='매우 그렇지않다' ~ 7='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각각의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지를 물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삶의 만족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 3.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7년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6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회기 프로그램 시작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6회기 프로그램 종료 후에 사후검사로 총 2회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45명에게는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 처치를 시행하였고, 통제집단 45명에게는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실험설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Experimental design table of study

Collect name	Personnel	Experimental Design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45	O1 - X - O2	O1 : Advance inspection O2 : Post-test X : Program implementation
Control group	45	O3 ----- O4	O3 : Advance inspection O4 : Post-test

### 3.2.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설문응답자 90명중 실험집단 미기재 및 오류표기 1명을 제외 한 44명과 통제집단 45명으로 총 89명이 응답한 설문지이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24.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삶의만족도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삶의만족도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생 인성증진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삶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내에서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및 해석

### 4.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으로 성별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남자 14(31.8%), 여자 30명(68.2%)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은 남자 13(28.9%), 여자 32명(71.1%)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불교 3명(6.8%), 기독교 7명(15.9%), 원불교 14명(31.8%), 무교 20명(45.5%)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은 불교 2명(4.4%), 천주교 7명(15.6%), 기독교 9명(20.0%), 원불교 3명(6.7%), 무교 24명(53.3%)로 나타났다. 통학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집에서 통학 30명(68.2%),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자취 8명(18.2%), 기숙사 6명(13.6%)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은 집에서 통학 33명(73.3%),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자취

6명(13.3%), 기숙사 6명(13.3%)로 나타났다. 적성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매우 맞지 않다 1명(2.3%), 맞지않다 2명(4.5%), 보통이다 13명(29.5%), 맞다 18명(40.9%), 매우 맞다 10명(22.7%)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은 매우 맞지 않다 3명(6.7%), 맞지않다 2명(4.4%), 보통이다 16명(35.6%), 맞다 20명(44.4%), 매우 맞다 4명(8.9%)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periment		Control	
		Frequency	%	Frequency	%
Gender	Male	14	31.8	13	28.9
	Female	30	68.2	32	71.1
Religion	Buddhism	3	6.8	2	4.4
	Catholic	0	.0	7	15.6
	Christian	7	15.9	9	20.0
	Won Buddhism	14	31.8	3	6.7
	Atheism	20	45.5	24	53.3
School	At home	30	68.2	33	73.3
	Footprints in one room or in another	8	18.2	6	13.3
	dormitory	6	13.6	6	13.3
Aptitude	Not very fit	1	2.3	3	6.7
	Not correct	2	4.5	2	4.4
	Is average	13	29.5	16	35.6
	Right	18	40.9	20	44.4
	It is very true.	10	22.7	4	8.9
	All	44	100.0	45	100.0

#### 4.2 사전 동질성 검증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리더십, 삶의 만족도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사전 동질성이 확보 되었다(Table 3).

#### 4.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사후 차이검증

대학생의 인성, 자아 존중감, 리더십, 삶의 만족도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후 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성척도( $t=3.092$ ,  $p<.01$ ), 자아존중감척도( $t=2.891$ ,  $p<.01$ ), 리더십척도( $t=2.297$ ,  $p<.05$ ), 삶의 만족도( $t=5.504$ ,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Table 3. Intergroup Pre-homogeneity

	Experiment		Control		t	p
	M	SD	M	SD		
Personality scale	3.86	.42	3.84	.46	0.308	0.759
Cooperation	3.74	.74	3.61	.77	0.817	0.416
Honesty	3.64	1.15	4.01	.72	-1.813	0.074
Filial piety	3.87	.63	3.79	.67	0.591	0.556
etiquette	4.20	.52	4.21	.63	-0.035	0.972
Respect	4.07	.51	4.07	.66	0.048	0.962
accountability	3.93	.68	3.82	.64	0.787	0.434
communication	3.96	.58	3.98	.64	-0.121	0.904
care	4.02	.56	3.86	.69	1.214	0.228
Self-esteem scale	3.39	.45	3.44	.51	-0.530	0.597
Self-esteem	3.37	.75	3.27	.77	0.633	0.528
Relationship with others	3.65	.51	3.78	.61	-1.080	0.283
Leadership and popularity	3.44	.57	3.41	.58	0.172	0.864
Assertiveness	3.09	.55	3.25	.63	-1.283	0.203
Leadership Scale	3.51	.50	3.39	.42	1.253	0.214
Human relationship	3.46	.63	3.27	.59	1.444	0.152
Communication ability	3.75	.50	3.72	.52	0.360	0.720
Decision making ability	3.49	.63	3.48	.50	0.147	0.883
Conflict management ability	3.44	.56	3.24	.48	1.819	0.072
Time management ability	3.40	.68	3.24	.52	1.290	0.201
Life satisfaction	4.73	1.18	4.59	1.14	0.572	0.569

Table 4. Post-group differences

	Experiment		Control		t	p
	M	SD	M	SD		
Personality scale	4.08	0.46	3.78	0.44	3.092**	0.003
Cooperation	4.00	0.60	3.60	0.70	2.947**	0.004
Honesty	4.17	0.67	4.20	0.71	-0.217	0.829
Filial piety	3.99	0.52	3.65	0.68	2.634*	0.010
etiquette	4.37	0.51	4.09	0.62	2.283*	0.025
Respect	4.16	0.56	3.96	0.67	1.523	0.131
accountability	4.09	0.65	3.77	0.66	2.288*	0.025
communication	4.02	0.59	3.76	0.63	2.013*	0.047
care	4.02	0.62	3.80	0.59	1.731	0.087
Self-esteem scale	3.69	0.48	3.41	0.41	2.891**	0.005
Self-esteem	3.67	0.66	3.28	0.62	2.852**	0.005
Relationship with others	3.93	0.56	3.72	0.56	1.728	0.088
Leadership and popularity	3.70	0.61	3.35	0.48	2.982**	0.004
Assertiveness	3.45	0.56	3.25	0.49	1.773	0.080
Leadership Scale	3.56	0.46	3.36	0.36	2.297*	0.024
Human relationship	3.42	0.56	3.20	0.48	2.055*	0.043
Communication ability	3.77	0.62	3.63	0.44	1.243	0.218
Decision making ability	3.57	0.59	3.50	0.47	0.626	0.533
Conflict management ability	3.50	0.50	3.32	0.47	1.758	0.082
Time management ability	3.52	0.54	3.14	0.45	3.685***	0.000
Life satisfaction	5.33	0.84	4.31	0.90	5.504***	0.000

\* $p<.05$ , \*\* $p<.01$ , \*\*\* $p<.001$

Table 4와 같이 인성변화에 있어서는 인성의 8개 하위요인 중 협동( $t=2.947, p<.01$ ), 효( $t=2.634, p<.05$ ), 예( $t=2.283, p<.05$ ), 책임( $t=2.288, p<.05$ ), 소통( $t=2.013, p<.05$ ) 등 5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정직, 존중, 책임, 배려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아존중감 변화에 있어서는 자아존중감 5개 하위요인 중 자기존중( $t=2.852, p<.01$ ), 지도력과 인기( $t=2.982, p<.01$ )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타인과의 관계와 자기주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리더십척도에 있어서는 5개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t=2.055, p<.05$ ), 시간관리능력( $t=3.685, p<.001$ )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의사소통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및 갈등관리능력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 $t=5.504, p<.001$ )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 4.4 실험집단내 사전-사후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리더십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리더십,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내에서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 test)을 실시한 결과 인성척도( $t=-2.255, p<.05$ ), 자아존중감척도( $t=-2.900, p<.01$ ), 삶의 만족도( $t=-2.794,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Table 5와 같이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결과 특히 인성척도 하위요인 정직( $t=-2.705, p<.05$ )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척도 하위요인 타인과의 관계( $t=-2.430, p<.05$ ), 지도력과 인기( $t=-2.080, p<.05$ ), 자기주장( $t=-2.794, p<.01$ )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 $t=-2.794, p<.001$ )에서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효과는 인성척도에 있어서는 정직이며,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타인과의 관계와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에서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리더십에 있어서는 사전과 비교하여 사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선행연구 박은민(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이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서는 일치한 결과를 보였으나, 리더십 효과에서는 불일치한 결과로 나타났다.

Table 5. Experimental Group Prediction Difference

	Dictionary		Death		t	p
	M	SD	M	SD		
Personality scale	3.86	0.42	4.08	0.46	-2.255*	0.029
Cooperation	3.74	0.74	4.00	0.60	-1.766	0.085
Honesty	3.64	1.15	4.17	0.67	-2.705*	0.010
Filial piety	3.87	0.63	3.99	0.52	-0.977	0.334
etiquette	4.20	0.52	4.37	0.51	-1.517	0.137
Respect	4.07	0.51	4.16	0.56	-0.764	0.449
accountability	3.93	0.68	4.09	0.65	-1.236	0.223
communication	3.96	0.58	4.02	0.59	-0.498	0.621
care	4.02	0.56	4.02	0.62	0.000	1.000
Self-esteem scale	3.39	0.45	3.69	0.48	-2.900**	0.006
Self-esteem	3.37	0.75	3.67	0.66	-1.842	0.072
Relationship with others	3.65	0.51	3.93	0.56	-2.430*	0.019
Leadership and popularity	3.44	0.57	3.70	0.61	-2.080*	0.044
Assertiveness	3.09	0.55	3.45	0.56	-2.794**	0.008
Leadership Scale	3.51	0.50	3.56	0.46	-0.508	0.614
Human relationship	3.46	0.63	3.42	0.56	0.297	0.768
Communication ability	3.75	0.50	3.77	0.62	-0.154	0.879
Decision making ability	3.49	0.63	3.57	0.59	-0.664	0.510
Conflict management ability	3.44	0.56	3.50	0.50	-0.552	0.583
Time management ability	3.40	0.68	3.52	0.54	-1.037	0.306
Life satisfaction	4.73	1.18	5.33	0.84	-2.794**	0.008

\* $p<.05$ , \*\* $p<.01$ , \*\*\* $p<.001$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 적용 결과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리더십에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앞서 밝힌 김선주(2016)의 대학생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적 요구가 높게 나타난[9]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으나, 박은민, 박미량(2015)의 대학 신입생을 위한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이 신입생들의 리더십, 생활기술,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10]는 이론은 검증해 내지 못하였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인성 하위영역에서는 정직에서만 긍정적 향상효과가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및 지도력과 인기 그리고 자기주장 순으로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에서는 가장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김선주(2016)의 연구에서 밝힌

대학생의 인성교육의 교육적 요구도에 있어서 남성이 정직과 소통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1, 2학년은 존중과 협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더 공감한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9]에서도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했다. 그러나 리더십의 효과에 있어서는 오승은(201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11]. 이에 논자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원인을 다음 3가지로 보고 이에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생에게 있어서 리더십변화는 단기간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논자가 개발한 인성리더십 프로그램내용 구성에 있어서 4회기에 진행한 창의적 리더십은 다양한 리더의 리더십 사례를 학습하는 강의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대학생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내용구성이 아니며, 또한 본 회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체험위주가 아닌 강의식 학습 형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판단된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면에 있어서도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는 단기 프로그램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리더십 향상에 있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프로그램 내용구성에 있어서 리더십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회기를 늘려서 구성해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강의식 학습 형태보다 체험식 실습형태로 운영해야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 인성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사전 사후 설문지를 사용한 양적 연구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보다 심층적인 효과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인성리더십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리더십과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의 효과 검증결과 대학생 인성교육의 핵심을 정직으로, 자아존중감 증진에는 타인과의 관계 및 지도력과 인기 그리고 자기주장을 중심으로 단위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삶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교육에서 비교과 단위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인성교육을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와 연계하여 통합적 인성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경험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성리더십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논자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리더십 증진을 통해 삶의 만족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가 일개 대학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학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기에 향후 후속 연구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가치 있는 연구결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가 대학현장에서의 통용합적인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점이 되고, 오늘날 한국 대학생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최상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인성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대학인성교육이 글로벌 인성리더십을 갖춘 중견 직업인 배출로 이어져 전세계 인류를 힘차게 이끌어갈 전문인재 양성의 대과업을 달성해야만 되는 대학교육의 막중한 책임을 재인식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 한다.

##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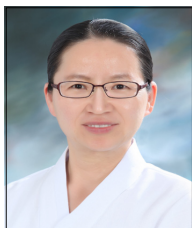
- [1] M. S. Choi,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nd Measures to Improve Personality Education Conducted by Won-Buddhism's Institu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Studies*, Vol.44, pp.45-73. 2014.
- [2] M. S. Choi,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Liberal Education at the Junior College According to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Vol.11 No.6., pp. 663-702. 2017.
- [3] J. K. Youk, "The Effect of Liberal Education for Personality Enhancement on Core Competency",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Vol.11, No.3, pp.23-36, 2017.  
DOI: <https://doi.org/10.18015/edumca.11.3.201712.23>
- [4] T. Lickona, "Character education: Seven crucial issue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Vol.20, pp77-84, 2012.  
DOI: <https://doi.org/10.1080/01626620.1999.10462937>
- [5] S. N. Son, "A Didactical Reflection on Character

- Education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Vol.8, No.2, pp11-41, 2014.
- [6] E. M. Park,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2, no.7, pp.497-509, 2012.  
DOI: <http://doi.org/10.5392/JKCA.2012.12.07.497>
- [7] J. K. Youk, “The Effect of Liberal Education for Personality Enhancement on Core Competency”,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Vol.11, No.3, pp.23-36, 2017.  
DOI : <http://doi.org/10.18015/edumca.11.3.201712.23>
- [8] E. J. Kim, M. H. Seong, “Influence of Personality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on Core Competences - Focusing on Humanistic · Global · Creative Convergence · Service and Devotion ·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Competences”, The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Vol., No.40, pp.133-156, 2016.
- [9] S. J. Kim, “A Study of a Character Education Plan According to Character Levels and Requirements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23, No.2, pp.1-19, 2016.  
DOI: <https://doi.org/10.15284/kjhd.2016.23.2.1>
- [10] E. M. Park, M. R. Park, “Effects of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6, pp.565-574, 2015.
- [11] S. E. Oh,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Leadership Camp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pp92-109, 2016.
- [12] S. J. Kim, “Development of the Character scale based on the main pillar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1, No.3, pp.217-258, 2017.

---

최 미 숙(Mi-Sug, Choi)

[정회원]



- 2005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방법및공학과 (교육학 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육학, 인성교육,